

- (분산경로 다양화) 관측월보 이외에 SNS 등 여러 매체 활용
 - 관측월보(184천부), 문자(145천명), SNS 등(76천명) 활용, 이용자에게 매일 제공
 - 최근 이용율이 높은 카카오토티를 통한 분산도 병행('13.11~)

3) 수급안정 지원제도 시행

- 계약재배) 재식기에 농가와 계약 후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 조절
 - 가격변동성이 높은 8개 품목에 대해 생산량의 19%수준 계약
 - * 사업량 : ('10) 500천톤 → ('13) 800 → ('14 계획) 1,053(평년 생산량의 19%수준)
 - * 사업비 : 8,828억원(정부 무이자융자 80%, 농협자금 20%)
- (수매비축) 산지가격 지지 등 수급안정을 위한 국산비축 확대
 - (국산비축) 배추·고추·마늘 비축물량 확대, 무·양파 신규 비축
 - * (확대: '13→'14) 배추 11.8천톤 → 13, 고추 6.1 → 7.1 마늘 9.2 → 12 / ('14 신규) 무 4.3, 양파 14
 - (수입비축)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, 운용규모 등 최소화
 - 할당관세 운용품목을 축소하고, 물량·세율·기간 등 제한
 - * 전체품목/물가관련 : ('12) 65개 품목/ 38 → ('13) 41 / 13 → ('14) 35 / 8
 - 시장접근물량은 공급부족 및 가격 급등 시 제한적 증량

□ 추진성과 및 한계점

1) 추진성과

- 수급조절 논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모델 정립
 -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상호합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
 -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 및 조율을 거친 후 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갈등요인을 조기에 해소
 - * 13회에 걸쳐 위원회가 열렸으며, 합의가 결렬된 사례는 1건도 없음

< '13년산 양파 수확기 가격급등시 합의 사례('13.6) >

- 상황 : 수확기(6월) 도매가격이 심각단계에 위치, 소비자측 수입요구
- 진단 : 공급부족이 아닌 산지 수매가 인상 및 출하기피가 상승요인
- 결과 : 생산자측이 산지출하를 확대키로 합의(7월부터 안정단계 진입)